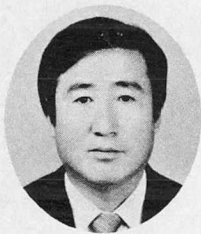


정부는 환경정책의 입안자 역할을 다해야...



박철곤
(삼광종돈장)

우리나라에 축산업이 부업형태로부터 전업 또는 기업형태로 변하여 온지 불과 10년 조금 넘었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분야의 산업도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그보다 더 발전된 것은 우리의 생활환경이다. 환경의 공개념에 반대하는 무심한 축산인으로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조그마한 하천으로부터 넓은 강과 바다와 대기까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것임을 자타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축산공해는 식량산업의 전진기지로써 동식물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독극물이나 중금속은 아니다. 많은 양의 돈분을 쌓아 두어도 1년만 지나면 동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흙과 함께 살수 있지만 지속적 축산폐수 방출은 하천 오염으로부터 위생적 문제까지 심각하

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도 축산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축산인 혼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아무도 농축산업을 지탱할 농민이 없을 것이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에는 하천에 따라 (BOD)가 50ppm 이하라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치도 변할 것으로 볼 때,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시설 자금과 여러가지 형태의 비료화 방법과 넓은 유휴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는 증발 침투도 인정해야 하고, 특히 지역에 따라 축산업이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곳은 종말처리장으로 투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담을 하되 운영은 축주들의 공동부담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로 축산의 집단지라도 종말처리를 한다면, 하천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농지법, 산림법, 건축법, 환경법 등 법만능주의에 우리 양축농민은 모두가 범법자가 되고 있다. 다같이 맑은물, 깨끗한 공기, 미학적인 농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의 입안자인 정부도 기술적인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

300두 미만은 장기저리 융자 필요



방기조
(양산지부장)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오염의 대명사는 대규모 공단이나 공해업체로 지칭되는 공업분야에만 문제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생활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축산폐기물에게까지도 법적인 규제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미 88년 6월부

터 법률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양돈업이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부업내지 전업단계에 있는 양돈농가의 입장에서서는 일시에 맞은 자본을 투입하여 표준설계도에 맞는 폐수정화시설을 갖추는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모든 일에는 우선적인 사항이 있으므로 점차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양돈장의 정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가 동하여야 하며, 규모의 축소 및 신규농장허가를 규제하여야 한다.

둘째, 전업규모의 양돈장은 기존정화시설을 보완하

거나, 신규시설토록 하며, 대체 방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인정토록 한다.

세째, 300두 미만의 부업규모의 농장에는 시설비를 정부차원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시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양돈장 자체에서도 축산폐수의 방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액비화 이용, 발효돈사 이용 등의 자체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하기 보다는 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의 지원을 기대하며,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분뇨수거차를 구입하는 지원금 필요해



이 선 수

(본회 울산울주지부 회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고 축산인들의 소득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 축산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중시킬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축산폐수시설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영세양돈농가들은 생활터전을 저버리고 이농현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국민 1인당 소득이 선진국 대열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배려와 지원으로 공업발전을 가속화 시켜 높아진 소득원을 총취합한 것이다. 축산인들은 사치와 낭비와 허영심을 일소하고, 오직 열

심히 노력하여 댓가를 보장받겠다는 순박한 농심의 일면을 받아 들이시고 축산기자재 구입과 사료구입의 부가가치세의 면세조치와 육류수출지원금의 배려와 지원으로 축산농가들도 수입보장을 영위할 때 특별청소구역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난무한 5,000두 이상의 기업축산에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특히, 축산폐수는 일상생활에 다소의 저해되는 공해는 있겠지만, 인체에 대한 유해물질은 없는 것인바, 농토의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국고금을 낭비하여 객토 사업을 벌리는 일면보다 그 국고금을 이용 10,000두 이상의 농장에는 분뇨수거차를 구입하는 지원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그래서 가축의 분뇨를 수거 농지에 뿌리고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 많은 농작물의 수확량을 늘려 우리 1천만 농민들 전체가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표준설계도의 합리적인 시공법을 제시해야...



조길현
(전 순천승주지부장)

우리 양돈농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공법에 의한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나 설치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짧은 소견이나마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현재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이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이다.

둘째, 환경청에서 제시하여 시·군에 비치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법중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째,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시공업체에게 위탁시공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네째, 중소규모의 양돈농가가 경제적 부담을 할 수 없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양돈농가가 고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난으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에서는 영세양돈농가에게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위한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 부담 없이 시설을 갖추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업육성에만 시설투자를 실시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양돈농가에도 양돈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거듭 정책적인 뒷받침을 촉구하며, 아울러 양돈농가 스스로 하루속히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어 깨끗한 농촌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돈육비방 (豚肉秘方)

돼지고기, 이런곳에 좋습니다

●어린이 경풍(驚風)이나 간질(癇疾)

돼지 치아(齒牙)를 바삭 태워 가루를 만들고 이것을 매일 세 차례 식간마다 따끈한 물로 0.5돈중(약 1.8g) 또는 1돈중(3.75g)씩 복용하면 된다. 이렇게 1개월 동안 계속 복용하면 된다. 만약 낫지 않으면 10일후에 다시 1개월간 복용한다. 이와같이 하여 나올 때 까지 계속하면 된다.

또 한가지 처방은 수돼지 콩팥 2개를 잘게 썰어 당귀(當歸)가루 2돈중(7.5g)과 섞어 말걸리 3홉으로 달이고 1홉정도 될 때 이것을 3등분하여 매일 세 차례 식후마다 30분후에 1등분씩 복용하면 된다. 만약 낫지 않을 때에도 계속 복용하면 낫는다. 또 돼지 젖을 자주 마셔도 낫는다.